■ '국군의 날' 31사단 해남대대 가 보니…

31사단 예하부대 해남대대 박기성 대대장과 병사들이 지난달 30일 부대 내 제1생활관에서 농담을 주고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해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구타·폭언 없고 군기는 '칼'

# 우정 넘치는 신바람 병영

### 병영 청정구역 지정
### 장교·신병 목욕대화
### 해남군 문화 탐방도

"원산폭격이나 구타, 빼빼이(기합) 등의 군대 용어는 사라진 지 오랩니다. 우리 부대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병영생활의 청정구역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 해남군 해남읍 31사단 해남대대 제1생활관. 이병·상병·병장 등 병사 6명이 도란도란 모여앉아 '삼육구' 게임을 하고 있었다. 계급을 가리지않고 게임을 즐기는 모습에서 각별한 전우애가 느껴졌다.

벌칙 또한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이등병들이 게임에서 진 한 선임병의 등을 묵직한 손바닥으로 거침없이 내려쳤다. 선임병이 등을 비틀며 아픈 시늉을 하자, 후임병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선임병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과거와 달리 내무생활은 매우 자유로워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군기'(軍氣)다. 경계근무에 나서는 병사들의 눈빛은 매서웠다. 선·후임병 간의 경례 구호도 박력이 넘쳤다. 불과 1시간 전 생활관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또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근무지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에서는 든든함이 느껴졌다. 병사 모두가 적의 침투에 한 치의 빈틈도 허락치 않을 기세였다.

편무진(22) 상병은 "병사들 사이에서 훈련이나 경계근무 만큼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자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나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가 31사단 예하 대대 가운데서도 '명품 부대'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초. 모종화 사단장의 지시로 상급 부대에서 '병영문화 혁신운동' 일환으로 해남대대를 '병영 청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병영 청정구역'은 부대 내에 남아 있는 악·폐습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기성 대대장 이하 장교들은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의 호응도도 높아지고 있다. 신병들과 목욕탕 간담회를 비롯, 신병 세수식과 해남 문화탐방, 부대 내 청정구역 지정, 암행어사 제도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부모님과 매일 주고받는 전화 통화시간과 간담회 등은 군생활에 지친 병사들에게 믿음과 활력을 심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또 이같은 움직임은 전 부대원들의 힘을 한데 모으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무사고 명품 해남대대'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기성 해남대대장은 "전 부대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부대 분위기가 칭찬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병영으로 탈바꿈했다"며 "또 병영생활의 능동적·자율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부대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대장은 또 "부대원들이 전역 후에도 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력을 갖춘 최정예 전투요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이종행기자 golee@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광주시·구청 6개월간 연인원 3000명 단속… 딱 1곳 적발

# 식당 반찬 재사용 안잡나 못잡나

### 1곳도 주민 제보로

광주시가 올 들어 상반기까지 지역내 업소 4531곳을 대상으로 남은 반찬 재사용 여부를 단속해 단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산구 한 감자탕집 사례도 단속반이 자체 적발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제보로 남은 반찬을 다시 손님상에 올렸다가 들통난 경우다.

광주시·5개 자치구·시민참여요원 등 18명이 6개월 동안 연인원 3000여명이 단속을 나갔으나 그 성과는 사실상 '제로'인 셈이다.

이는 최소 5곳 이상이 적발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큰 차이가 난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전국 86곳으로, 서울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1곳)과 경기도(7곳)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단속 방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그것보다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업소들의 남은 반찬 사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은 반찬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복근무까지 하며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도 불시에 업소들을 둘러보고 있으나 남은 반찬 사용 업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며, 처음 적발되면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번째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다이아반지가 사람 여럿 잡네

### 주운 40대 점유이탈물횡령
### 반지 훔쳐 판 아들은 절도
### 팔아준 친구는 장물알선죄
### 선후배들 주민등록법 위반

길에서 우연히 주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때문에 부자와 아들의 친구 등 5명이 무더기로 범죄자 신세가 됐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지내는 이모(18)군은 지난 7월 중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자신의 집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 아버지(42)가 남구 봉선동 한 길거리에서 주운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이군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에게 박모(20)씨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며 "반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이군이 건넨 주민등록증은 '성인용'으로 쓰기 위해 후배(16)에게 5000원을 주고 사놓았던 것이다.

용의주도한 이군의 친구는 보석감정사에게 돈을 주고 이 반지의 감정을 의뢰해 진품이라는 감정서를 확보, 이를 금은방에 팔아넘기고 받은 돈 200만원을 이군에게 건넸다. 두둑한 용돈을 손에 넣은 이군의 행각은 반지의 소재를 찾던 아버지에게 발각됐고, 아들이 쓰고 남은 돈 120만원을 빼앗은 아버지는 이 돈을 생활비로 써버렸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씨 부자(父子)의 철없는 행동은 들통났다.

광주서부경찰은 30일 반지 주운 뒤 임의로 보관한 이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반지를 훔쳐 판 이씨의 아들을 절도 등의 혐의로, 반지를 팔아준 친구를 장물알선 혐의로, 주민등록증을 판매·구매한 박씨와 후배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연구비 도둑질 순천대 교수 5명

# 벌금형 선고 교수직 유지

정부와 지자체 등이 발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달 30일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순천대 조모(47) 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4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모두 초범인 점과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수 등 5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조 교수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업자들과 짜고 기자재를 허위로 구입하거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각각 2800만~1억3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교수 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웃참 〈8131〉 김종두

## 우산동 아파트 방화추정 불

지난달 30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아파트 10층 이모(여·38)씨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아파트 내부 79㎡를 모두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은 인근으로 번져 이씨의 옆집과 윗집 등 5세대가 불에 그을리는 등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한 남성이 베란다에서 인화물질로 보이는 액체를 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이씨의 남자친구인 김모(40)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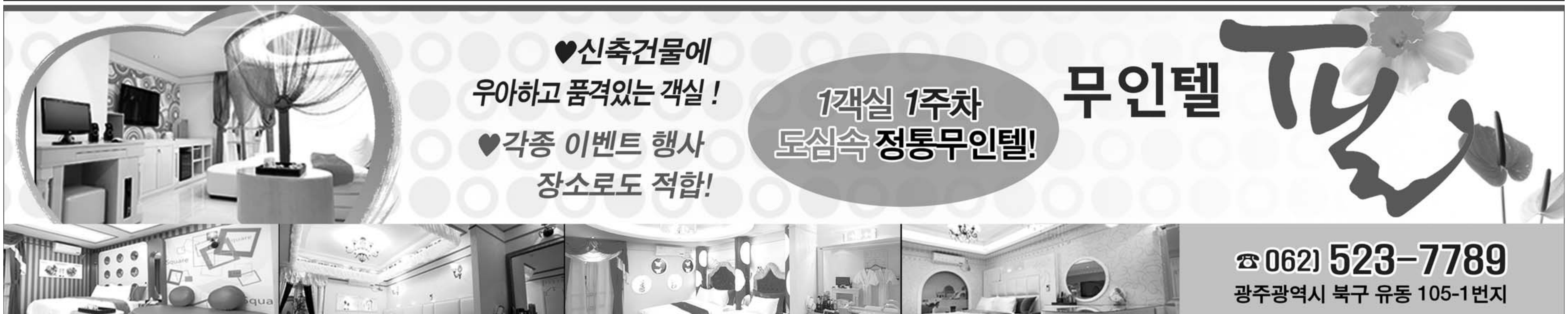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남의 중국집 짜장면 그릇 수거 '절도'

쌍나팔

○…중국집 배달원이 아파트 복도에 놓인 다른 중국집의 짜장면 그릇을 수거해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P중국집 종업원 이모(48·광주시 동구 학동)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D아파트 1층 복도에 놓여있던 D중국집 그릇 2개(시가 2500원)를 자신의 철가방에 넣어 가져간 혐의.

○… 담당 경찰은 "이씨가 다른 중국집의 그릇인 줄 알고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